

사회

서울·부산서 이사 왔는데 집 근처 학교 못가고 무한정 '순번 대기' '전학 전쟁' 애타는 학부모들

교육청 "정원 넘쳐 어쩔수 없다" 방관만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아직 전학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진급예정인 자녀를 둔 김모(51)씨는 아이 전학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울에서 광주로 직장을 옮기게 돼 남구 봉선동으로 이사했지만, 아이가 집과 가까운 D여중에 다닐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정원이 차서 받아 줄 수 없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었다. 김씨는 백방으로 전학할 학교를 찾고 있다.

그는 "위장전입하는 것도 아니고 객지에서 이사 와서 전학할 학교를 찾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지 모르겠다"며 "전학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신학과 이사철을 맞아 광주시내 중학교에서 '전학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어 마냥 학생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생 수용 능력을 고려해 매년 학교의 학급규모와 학생정원을 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1일 추첨을 거쳐 학생들을 각 학교에 100% 배정했다. 나머지 5%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충원할 수 있지만, 그 인원도 이미 채워진 학교가 대부분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 새 명문학교로 이름이 알려진 남구의 D중, D여중, M중 등 학부모들의 선호하는 사립 중학교는 예외없이 전학 대기 순번에 이름을 올려놓고 자리가 비기를 기다리는 학생들로 넘쳐나고

있다. 실제 부산에서 광주 남구로 집을 옮긴 강모(55)씨도 중학생 자녀를 집 근처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아직 적당한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강씨는 "아이 학교를 옮기는 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집 근처의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하는 수 없이 통학하는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교육청의 신입생 배정에 이어 전학생 등을 위한 재배정까지 모두 끝난 후인 2월 말에 전학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경우 교육당국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만나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부모들의 아이의 전학을 위해 언제까지 가슴앓이를 해야

하지 모르겠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최소한 전학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고충을 들어줄 부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부모들의 선호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공나물 교실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텅 비는 등 교육환경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전학생들을 위해 수용인원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모들의 사립학교 선호를 오히려 부추길 우려도 있다고 설명한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학 때문에 애매우는 부모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소수 전학생들을 위해 규칙으로 정해진 학생수용 규모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전학사태는 학부모들이 지나치게 사립학교를 선호해 빚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파업 세 달 전주 버스 방화·파손... 시민 불안

경찰, 전담수사팀 확대

전주 곳곳에서 버스를 대상으로 방화와 테러가 잇따라 운전사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세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의 파업과 관련,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소행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새벽 0시11분께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 차량정비소에 주차돼 있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자 김모(50)씨는 "집에서 TV를 보던 중 밖에서 강풍 던지는 소리가 들리는 등 시끄러워 창문을 열고 차량정비소 쪽을 바라보니 버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발화지점이 기름통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데다 신고자 진술 등으로 미뤄 방화로 추정하고, 화재 현장을 정밀 감시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선 지난 23일에는 오후 7시9분부터 13분 동안 전주시 진북동 한국은행 앞 등 3곳에서 운행 중인 대체 시내버스에 누군가 새총으로 쓴 돌맹이가 날아와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 대 동시다발적으로 유리창이 깨졌고, 충격 부위의 직경이 1cm 이상인 것으로 미뤄 범인이 새총에 돌을 넣어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버스 유리창의 연쇄 파손 사건이 운전사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시민에게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버스를 표적으로 한 잇단 공격으로 운전사와 이용객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서 "불법 행위자를 적발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의 민주노조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에 반발해 지난해 12월부터 파업중이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나원침 (8255) 김종두



강절도 행각 10대 2명 구속

함평경찰은 27일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농촌지역을 돌며 강·절도 행각을 벌인 신모(19)·안모(19)군 등 2명을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신군 등은 지난 22일 밤 9시40분께 함평군 해보면 강모(여·67)씨의 수퍼에 침입해 강자와 손바 정도(81)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희기자 hwang@

유재석 처남 결혼 연예인 대거 광주로

○27일 오후 인기 연예인 유재석씨의 부인인 나경은 아나운서의 오후 결혼식이 열린 광주 무등파크호텔에는 유재석을 비롯한 김종국씨, 하하씨 등 연예인들이 대거 나타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

○이날 낮 12시30분께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열린 유재석씨의 손위 처남 결혼식은 하하씨가 사회를 보고, 김종국씨가 축가를 부르는 등 유씨 부부와 연예인을 비롯한 친지 등 하객 700여명이 몰린 가운데 진행.

○다수의 연예인들이 참석하는 행사라 불상에 대비해 광주지방경찰청 직원중대 등 70여명이 배치됐으나, 비가 내린 탓인지 학생들이 몰리지 않아 별 탈 없이 끝났다고.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2억 횡령 담양 버스회사 前 대표 징역형

광주지법, 직원 2명도

광주지법 형사8단독 문장진 관사는 27일 거액의 운송수입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담양운수 전 대표 백모(5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전·현직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만성적자를 이유로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는

버스회사의 대표와 직원이 조직적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49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27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억8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서

금품 강도 10대 3명 검거

목포경찰은 27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금품을 된 최모(16)군 등 고교생 3명을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이날 새벽 1시10분께 목포시 옥암동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친구 2명과 함께 침입한

뒤 종업원 김모(16)군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인 최군 등은 범행 직후 인근 모텔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탐문 수사 끝에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23일과 26일 새벽 목포시 산정동과 상동의 편의점 2곳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용의자를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복경기자 dss6116@



대학생 해외봉사단 귀국 발표 국제청소년연합(IYF·회장 도기권)이 세계 각국을 돌며 해외봉사활동을 펼친 결과를 발표하는 '제9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귀국발표회'가 27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IYF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러시아 봉사활동을 마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러시아 전통의상을 입은 채 춤을 추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수기 비리' 행정실장·업자등 4명 입건

광주 서부경찰

'학교 정수기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정수기 설치 대가로 '뒤통'을 받은 광주지역 중·고교 3곳의 행정실장을 비롯수수

혐의로, 돈을 건넨 정수기 설치업자 이모(67)씨를 공갈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행정실장은 지난 2004년부터 3년간 학교 안에 정수기 20~30대를 설치해주는 대가로 이

씨로부터 분기별로 100만~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행정실장에 게 돈을 건넨 뒤 지난해 8월~12월에 광주지역 중·고교 관계자 7명에게 "내가 준 돈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서를 보내는 등 수차례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미운털' 강사 책임용 거부

억대 배상 판결

학교 법인과 갈등을 빚어온 전임 강사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 절차 없이 책임용 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7일 황모(49)씨가 학교법인 서호학원을 상대로 낸 '책임용 탈락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황씨에 대해 급여손실과 위자료 등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한 책임용 거부결정은 객관적 근거가 공정한 심사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996년부터 한려대 전입강사로 근무하다 1998년 5월 설립된 교수협의회에 가입해 학교법인 측과 갈등을 빚었고, 2000년 2월에는 학교 측으로부터 심사 절차 없이 임용기간 만료를 통지받았다.

이후 황씨는 2005년 7월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원소정 심사 특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책임용 거부결정 취소 결정을 받고 민사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167-1199-1199
 167-1199-119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즘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할전복 전국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